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9호 【루계 제25973호】 주체107(2018)년 4월 9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세기를 이어 높은 존엄과 불패의 위용을 떨쳐가는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체82(1993)년 4월 9일은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사회주의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리정표를 세운 의의깊은 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지니신 4월 9일이 있어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사상과 위업이 빛나게 계승발전되게 되었으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에로 폭풍쳐 내달리는 장엄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오늘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광명한 미래에로 신심드놓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위상과 양양한 전도는 력사의 이날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 불같은 애국헌신으로 조국과 민족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하신 절세의 애국자,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일찌기 조선을 빛내이실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험난한 선군혁명의 길을 걸으시며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신뢰심의 분출이였으며 장군님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려는 철석같은 의지의 발현이였다.

지난 세기 90년대는 우리 조국력사에서 류례없이 간고한 시련의 시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강철의 신념과 초인간적인 의지로 불굴의 혁명실록을 수놓아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성스러운 력사가 창조되고 주체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고수되게 되었으며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속에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와 나라의 전반적국력이 비상히 강화되게 되었다.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안아오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심장을 끓이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세월이 흐를수록, 누리는 행복이 커갈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업적이 얼마나 고귀한것인가를 심장깊이 새기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이 있어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창창하다는것이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견결한 자주정치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것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업적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강국의 기본징표이다. 비록 작은 나라와 민족일지라도 투철한 자주정신의 체현자, 자주적신념의 제일강자를 령도자로 모시면 강국의 위용을 떨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결심과 의지에 따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자주는 곧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이고 전진발전이였으며 주체혁명의 승리였다.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속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이끌어오시였으며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천만군민을 자주적근위병, 자주적인민으로 키우시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비상히 강화하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며 새 세기에도 자기의 발전행로를 자랑찬 승리로 수놓아올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정치로 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만방에 힘있게 떨쳐지고 우리 조국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온 세계에 빛을 뿌리게 되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하는 법을 배우며 자주의 신념과 배짱을 체질화한 천만군민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앞으로도 주체의 항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공화국을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것은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은 국가존립의 초석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정치와 군사를 능숙하게 결합시켜나가는 령도자만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강성번영에로 이끌어갈수 있다.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였으며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집중공세로 조성된 엄혹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정치는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는 선군정치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에 의하여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인민군대의 혁명적면모가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우리의 국방공업이 주체혁명의 병기창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온 나라가 그 어떤 대적도 넘겔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져지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이 원쑤들의 온갖 도전과 침략책동을 단호히 쳐갈기며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동지의 천만로고의 고귀한 결실이다.

지금 우리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은 극도에 이르고있지만 우리 인민의 배심은 든든하다. 백두의 천출명장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의 일당백강군으로 자라난 혁명적무장력과 강위력한 군민대단결이 있어 우리에게는 적들의 그 어떤 위험공갈이나 강권이 절대로 통할수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신념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꽉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로 우리 공화국을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신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업적이다.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고 사회주의의 기초이다. 인민들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따르며 받들어나가는 정치가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정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는 온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게 한 자양분이였다.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천만군민과 생사운명을 함께 해오신 위대한 장군님과 같으신 인민의 어버이를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하고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세계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인덕은 최전연초소와 외진 섬마을, 이 나라의 평범한 가정들에도 깃들어있으며 장군님의 인민적풍모는 인민을 찾아 끝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우에도 뜨겁게 새겨져있다.

령도자와 군민이 사상과 뜻, 숨결과 발걸음을 같이해나가는 일심단결의 대진군속에서 고난의 행군이 승리적으로 결속되었고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귀중한 재부들이 마련되였다.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활짝 꽃펴나게 된것은 우리 당의 인덕정치의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오늘 당과 국가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과 더불어 길이 빛날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은 령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것이다.

령도의 계승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잇닿아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으로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한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의 숭고성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뛰여난 정치군사적자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특출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것이야말로 주체조선의 크나큰 행운이고 영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지니시고 력사의 생눈길을 두단계에서 체험하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올해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올해의 혁명적명절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간직하고 올해의 총진군에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사상과 업적은 우리 공화국의 강성번영과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년재보이며 대백과전서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집대성되여있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관한 사상리론들을 불멸의 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장군님식대로 풀어나가며 장군님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만단사연들을 전하는 폭장과 퀘기밥, 야전솜옷을 지나깨나 되새기며 장군님의 애국의지로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와 숨결이 깃들어있는 혁명의 전취물들과 사회주의조국의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후손만대에 빛을 뿌리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조국의 존엄과 권위를 온 누리에 떨치고 이 땅우에 하루빨리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원수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불타는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의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순결한 양심과 의리로 최고령도자동지를 받드는 참된 혁명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수령옹위, 혁명보위, 조국사수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 공화국과 더불어 백승의 력사를 떨쳐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수령결사옹위군, 혁명적당군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감을 가슴깊이 새기고 목숨은 버려도 혁명의 붉은기, 주체의 당기를 끝까지 지킬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지니고 백두산총대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그 어떤 불의적인 정황에도 대처할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국력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원대한 포부와 락관에 넘쳐 올해의 총진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자력갱생만이 우리가 갈길, 살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야 한다. 누구나 첨단돌파전은 자기 초소, 자기 일터에서 자기들이 벌려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의 모든것을 세계에 없는 사회주의재부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사상과 업적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을 계속 고조시키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오늘의 하루하루를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앞채를 메고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이신작칙으로 오늘의 총공격전을 박력있게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한다.

모두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뜻깊은 태양절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불타는 일념안고 대상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당, 행정, 기술일군들이 중요단위들을 맡고 내려가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날마다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새형의 능력이 큰 권양기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수입에 의존하던 합금강을 쓰지 않으면서도 종전의 권양기에 비해 훨씬 가볍고 구조가 간단한 새형의 권양기생산에 대담하게 달라붙은 제관직장, 주강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련통과 감속기제작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제관직장에서는 자체로 많은 철판을 회수리용하여 몇달은 걸려야 하는 부분품제작을 20여일동안에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련합기업소기술집단은 프로그람들을 개발하고 배전함제작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지금 련합기업소에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가스발생로제작에 필요한 대상설비생산을 마지막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채탄기직장, 권양기직장, 콘베아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뚫고나가면서 대상설비생산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석탄가스화에 의한 도자기생산공정확립에 필요한 대상설비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는 여러대의 볼분쇄기생산과제를 짧은 기간에 결속한 기세드높이 대상설비생산에서 련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로동자, 기술자들은 평각재롱을 개조하여 유도로의 생산능력을 훨씬 높인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총공세의 불길높이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대상설비생산실적은 날을 따라 계속 높아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신의주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

평양시에서

평양시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파철수집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시에서는 3월에 많은 량의 파철과 여러가지 지원물자를 철강재생산으로 들끓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보내준데 이어 지난 4월 6일 또다시 파철을 집중수송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나라가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속공업부문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년초부터 철강재생산으로 들끓는 강철전선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시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강철전선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파철수집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이와 함께 시인민위원회 해당 부서일군들과 구역,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시안의 모든 단위 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 맡겨진 파철수매계획을 매달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전투지휘를 잘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진행한 4월 파철집중수송에서는 중구역과 만경대구역, 대동강구역과 보통강구역, 동대원구역과 모란봉구역이 시적으로 제일 앞장에 섰다.

이 구역들에서는 일군들이 파철수집이자 철강재생산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여러 단위들에 나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파철수집사업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패기있게 벌리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짧은 기간에 많은 파철을 모아들이였다. 또한 수집된 파철량을 정확히 따져보고 수송조직도 빈틈없이 짜고들어 파철집중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특히 만경대구역의 일군들은 만경대남새전문농장과 구역인민병원, 선내동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나가 경제선동과 직관선전을 힘있게 벌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한편 한kg의 파철이라도 강철전선에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었다.

선교구역의 일군들도 구역안의 모든 주민들이 애국의 불타는 마음을 안고 강철전선지원사업에 떨쳐나서도록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은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어 구역앞에 맡겨진 계획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시에서는 이번에 수백t의 파철과 함께 여러가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보내줌으로써 철강재생산에 떨쳐나선 강선의 로동계급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파철수집사업에서는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과일가공기지건설 적극 추진

618건설돌격대에서

뜻깊은 태양절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밑에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고산과수종합농장에 수천㎡의 건축면적을 가진 과일가공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들은 벌써 여러 보조생산건물의 기초공사로부터 벽체쌓기, 층막치기를 짧은 기간에 해제끼였다. 그 기세로 덩지큰 기본생산건물의 벽체쌓기를 다그치고있다.

현대적인 과일가공기지건설은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생산한 과일로 여러가지 가공품을 만들어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에 의해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은 선하부구조건설원칙을 지키면서 건축공사를 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한 작전을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전투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갔다.

각 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결사관철의 함성드높이 공사에 진입하였다.

불리한 지대적특성으로 하여 기초굴착공사에서부터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이 준 과업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수행할 결사의 각오밑에 굴함없는 공격전을 벌리였다. 이들은 착암기의 리용률을 높이는것과 함께 함마와 정대로 굳은 암반을 까내면서 돌격로를 열어나갔다. 려단별사회주의경쟁이 맹렬히 벌어지는 속에 매일 많은 토량이 처리되고 공사속도가 높아졌다.

려단들에서는 기초굴착과 동시에 자재준비를 선행시키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많은 모래와 막돌, 잰돌을 마련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블로크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와 함께 과일가공기지에 수질이 좋은 물을 보장하기 위한 상수원부망굴착공사도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였다.

자력갱생기지들에서도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자재생산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자랑스럽게 빛내이려는 열의밑에 날마다 공사속도를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쳐주신 불세출의 위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5돐을 맞으며

민족의 행운, 최대의 영광

조국청사에 빛나는 년륜이 장엄히 새겨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25돐!

뜨거운 추억속에 25년전 4월의 그날을 숭엄히 돌이켜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은 끝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진다.

우리 천만군민은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심장속 깊은 곳에서부터 활화산마냥 터져나오는 영원한 부름을 다시금 뜨겁게 외워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 땅을 진감하며 끝없이 울린 위대한 그 부름과 더불어 우리 조국은 날에날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만을 아로새기며 영광의 오늘에로 줄달음쳐올수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 부름에 바로 우리 천만군민의 가장 뜨겁고도 격정넘친 력사의 체험이 비껴있고 이 나라의 영원한 승리에 대한 철의 진리가 맥박치고있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승리에서 승리에로 폭풍쳐온 영웅적인 대진군, 눈부시게 이 조선을 떨치며 힘차게 걸어온 긍지높은 무궁번영할 주체조선의 래일을 더욱 확신하게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사람들이여, 잊지 못할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시라.

지난 세기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모진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가 어떻게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는가.

살아있는것자체가 기적이였던 그때 어떻게 우리가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통로를 보란듯이 열어제낄수 있었던가.

선군!

바로 그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억척으로 벼려주신 선군의 보검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처럼 어려운 조건, 최악의 역경속에서 주저앉은것이 아니라 더욱 과감히 떨쳐일어나 남들이 믿기 어려운 기적만을 창조하며 승리의 오늘에로 줄달음쳐올수 있었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숭엄히 어려온다.

우리가 갈길은 선군이라는것을 력사앞에, 세계앞에 힘있게 선언하시며 우리 장군님 다박솔초소에 새기신 력사의 그 자욱자욱이.

선군, 그 길이 얼마나 시련에 찬 길이며 얼마나 긍지높은 조국의 래일을 안아오는 길인지 그때에는 누구도 몰랐다.

오직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선군의 길이 류례없이 준엄하고 고난에 찬 길이지만 반드시 그 길로 가야만 승리의 종착점에 도달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계시였다.

식량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모습과 멎어선 공장, 기업소들을 바라보시며 선군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심정을 과연 어떻게 다 헤아릴수 있으랴.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그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길.

정녕 그것은 조국수호를 위한 유일한 길이였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승리의 길이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다고 하시면서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조국앞에 가로놓인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길,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였습니다.

준엄한 혁명의 길에 한몸을 내대시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쳐나가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고패친것은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사회주의 내 조국을 총대로 지키고 더욱 빛내이실 철의 의지였다.

단순히 고난을 이겨낸것이 아니라 최강국의 높이에로 솟구쳐야 한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였기에 선군의 길을 앞장에서 과감히 헤치시였다.

선택하기도 어려웠지만 헤쳐나가는것자체가 더욱 간단치 않았던 선군의 길이였다.

선군의 험난한 길을 헤치시는 그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 겪으신 고생과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우리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간고한 애국헌신의 길을 걸어오시였는가 하는것은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입고계시던 단벌솜옷이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준엄했던 시련의 고비들을 넘으셨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더듬어보시다가 문득 자신께서 입고계시는 솜옷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솜옷을 수령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부터 입었는데 준엄하였던 력사를 잊을수가 없어 아직까지 벗지 않고있다고, 이 솜옷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몇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일을 돌이켜보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얇아진 솜옷으로 스며드는 추위보다도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자신을 불태우시며 10여년나마 그 한벌의 솜옷을 입으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찾고찾으시며 병사들을 한품에 안아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우시였다고 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적근위병으로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욱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야말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였음을 오늘의 자랑찬 현실이 얼마나 명명백백한 대답을 주고있는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머나먼 길이 있어 우리 군대가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수령의 군대, 필승불패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되여 사회주의조선에서 련전련승하는 력사의 기적이 창조될수 있었고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그 이름 높이 떨칠수 있었다.

선군의 위력으로 남들이 열걸음을 걸을 때 백걸음, 천걸음을 비약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공격정신은 고난이 휩쓸었던 이 땅에 기적으로 충만된 락원에로의 천만리를 펼쳐놓았다.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들, 희천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하여 수풀처럼 솟아난 발전소들, 청류다리와 금릉2동굴,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 사회주의조선의 땅땅이 훌륭히 변모된 농장벌들에 뻗어나간 자연흐름식물길들과 도처에 솟아난 현대적인 축산기지들…

그뿐이 아니다.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의 생산체계의 확립도, 련하기계와 더불어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으로 안아온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도 우리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의 길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우리 장군님 아니시면 누가 이런 장쾌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를수 있었겠는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대통로를 열어주시고 이 땅에 민족자주와 번영의 년대기를 장엄하게 아로새길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족만대에 쌓아올리신 가장 불멸할 업적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다!

천만의 심장마다에 암반마냥 굳게 새겨진 이 숭고한 사상감정은 그 어떤 책이나 이야기를 통하여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은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지난날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찬란한 래일을 마중가는 오늘의 실생활의 체험을 통해 천만군민이 스스로 새겨안은 철석의 신념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의 행복이고 영광이다.

바로 그렇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뜻깊은 력사의 이날을 맞이하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격정이 그처럼 열렬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조선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는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현대정치가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있기에 최후승리의 그날은 멀지 않아 밝아올것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철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

지난 세기 마지막년대는 우리 혁명앞에 어려운 시련과 난관이 드리웠던 고난의 시기였다.

가장 엄혹했던 시기에 우리 혁명이 순간의 동요나 추호의 좌절도 없이 백전백승할수 있은것은 신념과 의지의 제일강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합니다.》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가 나온 후인 주체84(1995)년 9월말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가 아주 잘되였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일군들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한해전 7월, 천만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사랑도 산천도 몸부림치던 그때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인 노래들을 많이 창작하도록 정력을 기울이시였다.

그리하여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신념을 분출시키는 노래 《우리는 맹세한다》가 나올수 있었고 련이어 기념비적걸작인 전인민적송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훌륭히 창작완성된데 이어 또다시 《높이 들자 붉은기》가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던것이다.

단순히 창작가들의 사색속에서 나온 노래가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00일 중앙추모회가 있은 후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실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노래가 바로 《높이 들자 붉은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문너머를 바라보시며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뚜렷이 밝혀져있다고, 신념의 붉은 기발을 휘날리며 주체의 한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결의가 노래에 반영되여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노래가사의 구절이 좋다고, 특히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여있다》, 《승리만을 기록에 새기여왔다》는 구절들과 당을 따라 붉은기를 끝까지 휘날려가리라는 결의를 담은 구절이 대단히 좋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여있다
높이 들자 붉은기 맹세로 불타라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

끓어오르는 심정으로 노래의 가사를 음미해보는 일군들의 눈앞에는 영광넘친 우리 혁명의 진군길우에 언제나 높이 휘날리는 붉은 기발의 세찬 펄럭임이 숭엄하게 안겨왔다.

저 멀리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시였던 혁명의 붉은 기발!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는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맹세를 담아 항일혁명투사들이 적조높이 부르던 혁명가요와 더불어 시대의 명곡으로 태여난 1990년대의 《적기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성스러운 붉은기는 우리의 신념이고 투쟁의 표대이며 승리의 상징이였다.

깊은 감동에 잠긴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는 자신께 큰 힘과 고무를 준다고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장내에 울리였다.

《높이 들자 붉은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와 더불어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갈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선언하시였으며 붉은기 높이 휘날리시며 폭풍사나운 시련의 길을 승리와 영광으로 찬란하게 수놓으시였다.

본사기자 한영민

사랑과 믿음으로 수놓아진 화폭

빛 나 는 현 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를 찾으신 주체87(1998)년 1월 어느날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들과 공장들을 돌아보시며 깊은 감명을 받으시였다.

자강도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를 돌아보신데 대하여 자신께서 의도한것, 자강도를 내세워 고난의 행군을 결속하려고 한것이 옳았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였다고, 자강도인민들이 오늘과 같이 어려운 때에 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 하는것을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값높은 평가와 믿음이 담겨져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세찬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자강도인민들과 마음도 숨결도 같이 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

그 불면불휴의 로고가 있어 자강도가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는 빛나는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던것이다.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며

어느해 가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섬초소를 찾으시였다.

부대지휘관들과 인사를 나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륙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섬초소에서 수고하고있는 군인들이 보고싶어 찾아왔다고 뜨겁게 이야기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콩농사며 남새농사를 잘할데 대하여서와 섬의 유리한 조건에 맞게 수산부업을 발전시켜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먹일데 대하여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은 누구도 보지 않는 외진 섬에서 오직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과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지휘관들에게 거듭 당부하시였다.

참된 애국자!

충직한 병사들을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언제나 병사들속에 계신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정은 오늘도 그 나날의 감동깊은 사연들을 뜨겁게 전하고있다.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들로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완공된 청년영웅도로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넓고 시원하게 뻗어간 도로를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청년영웅도로를 훌륭하게 건설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청년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과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한다고, 청년영웅도로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낳은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순간 일군들과 청년건설자들의 심장속에서는 세찬 격정의 파도가 일어번졌다.

청년영웅도로건설을 우리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주는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시고 건설진행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다 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건설의 나날 청년건설자들을 위하여 크나큰 은정을 거듭거듭 베풀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믿음과 사랑이 낳은 청년영웅도로!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사상은 이렇게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고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낳게 한 원동력이였다.

본사기자 전광남

력사의 그날에 울려퍼진 환호성

흘러간 력사는 추억속에 돌이켜진다.

하지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력사의 그날은 흘러간 세월에 대한 단순한 추억이 아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받아안은 수령복, 장군복에 대한 더없는 영광과 긍지감으로 가슴벅차오르게 하는 뜻깊고 사변적인 날로 천만의 심장에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지고 온 나라에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열풍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의 4월 9일, 력사의 그날을 되새겨보는 인민의 가슴은 참으로 뜨겁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혁명, 민족과 인류의 운명과 전도를 두고 신중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담화과정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이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맡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상정하신 문제가 아니였다.

그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은 오직 수령님의 전사일뿐이라는 평소의 의지를 다시금 피력하시였다.

한없이 겸허하신 그이의 말씀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제는 김정일동지가 국방위원회 위원장 사업을 맡아볼 때가 되였다고,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에게 당과 국가, 군대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맡긴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탁월한 후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 위대한 수령에 대한 무한한 존대와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가 숭엄히 흐르는 절세의 위인들의 뜻깊은 대화였다.

력사의 그날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였다.

당과 국가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업을 놓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 시대의 열망을 반영하여 전당, 전국, 전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계시며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불굴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뛰여난 지략과 령군술을 지니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할것을 엄숙히 제의하시였다.

순간 회의장에는 우뢰와 같은 박수와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성이 진감하였다.

혈전만리를 헤쳐온 항일의 로투사들도, 불바다를 헤쳐온 전화의 로병들도, 새 세대 일군들도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또 한분의 위대한 령장을 조국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게 된 더없는 기쁨과 환희였으며 그이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한 중대보도가 행성을 뒤흔들었다.

온 강산을 뜨겁게 달구어주며 활화산처럼 격정을 터친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절세의 위인을 흠모하여 울려퍼진 진보적인류의 찬탄의 목소리…

정녕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고매한 풍모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심의 발현이였다.

그때로부터 세기와 년대를 이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쌓으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이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는가를 뚜렷이 확증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걸출한 령도가 있어 그처럼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성과적으로 돌파되고 우리 인민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이 땅우에 강성번영을 위한 비약의 토대들을 억척으로 다져놓을수 있었다.

세월을 주름잡으며 이 땅에서 이룩된 거창한 창조와 민족사적사변들을 보며 세인은 진정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국방위원장으로 모시여 조선은 가장 강대한 나라로 되였다. 총대를 앞세우시고 백승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강적도 쥐락펴락하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각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유일한 승리의 상징이시다.》

한 외신이 전한 이 글에는 력사의 진실이 담겨져있다.

그렇다. 세상사람들이 한결같이 칭송하고있는것처럼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경과 시련을 박차며 승리의 언덕에 우뚝 솟구쳐오른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조선의 불굴의 기상은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이 얼마나 크나큰 행운이고 긍지인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그 높으신 권위와 더불어 세세년년 빛나고있으며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본사기자 채희성

신천군 새날농장에 새겨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현실침투와 일군의 실력

비약하는 오늘의 만리마시대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로 하여금 높은 실력을 소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실력이 없이는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출수 없으며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책임을 다할수 없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실무적자질을 갖춘 일군이 시대가 바라는 실력가이며 혁명에 필요한 사람이다.

혁명은 지금으로가 아니라 실력으로 한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는 오늘 일군들의 실력문제는 혁명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하다면 실력의 높은 봉우리로 오르는 디딤돌은 무엇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현실속에 침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배우며 실지 사업과정을 통하여 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타고난 실력가란 없다. 배워야 자질을 높일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문제이다. 중요한것은 어디서 배워야 하는가 하는것이다.

일찌기 새 조국건설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회의에서 일군들의 실무적자질을 높이는 문제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일군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시키고 그들의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만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은 사업과정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사상을 단련하고 실무적자질을 높여나갈수 있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회의에 참가한 일군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한것은 그때 일군들 누구나가 실력을 높이자면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여야만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것이다.

물론 교육기관이 중요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현실도 하나의 학교이라는것을 깊이 새기게 되였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높은 정치실무적자질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꾸준히 학습할뿐아니라 현실에 적극 침투하여 배우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수많은 일군들이 실력가로,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혁명가로 자라났다.

우리 수령님께서 그 이름을 자주 외우시며 못 잊어하신 정준택동지도 그러한 일군이였다.

우리 당이 기억하는 재능있는 일군인 정준택동지는 당의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인 무서운 정열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것처럼 그는 계속 공부를 하며 사업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그 학습이 다 책상머리에서 진행된것이 아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늘 아래에 내려가 생산현장에 몸을 푹 잠그고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그들에게서 배웠고 현실속에서 사색하였다. 사업을 하나 설계하고 조직하여도 먼저 현실에 나가 나라에 어떤 리익을 주겠는가를 따져보군 하였고 하나의 작은 문제를 놓고도 며칠씩 보대기면서 현실성있게 일을 전개하군 하였다.

그러자니 알아야 했고 알자고 하니 손에 노상 책을 들고있었다. 그에게는 사업과정이 중단없는 학습과정이였다.

현장에 나가있는 그의 가방이나 옷의 호주머니속에는 수첩과 함께 성냥곽들이 들어있었다. 거기에 담겨진 비밀을 처음에는 누구도 몰랐다.

수첩과 성냥곽들마다에는 깨알처럼 작은 수자와 글자들이 적어져있었는데 그는 짬짬이 손바닥만 한 그 수첩과 성냥곽들을 번갈아보면서 두툼한 책들을 번지며 밤을 패군 하였다.

그가 수첩과 성냥곽들에 적어넣은 각종 수자들과 글자들은 생산현장에서 찾아낸 문제점들을 부류별로 적어놓은것이였다. 그것은 모자라는 지혜와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기 위한 일종의 숙제문제들이였으며 정준택동지는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였다. 결국 성냥곽들은 보물곽인셈이였다.

그가 우리 수령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실력가로 될수 있은 비결은 이렇듯 현실에서의 꾸준한 사색과 탐구에 있었다.

현실침투는 큰 학습이며 실력을 키우는 마당이다.

시대는 매 사람에게 엄숙히 묻고있다.

동무는 실력으로 당을 받들고 있는가?

큰 일감이 앞에 놓였을 때 조국이 제일먼저 찾는 사람이 될수 있는가?

본사기자 최유일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자

사상발동을 만능의 열쇠로 틀어쥘 때

함흥시 흥덕구역당위원회 사업에서

함흥시 흥덕구역이 전변되고있다. 은덕산업병원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이 그전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달라지고 인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풀려나가고있으며 자체의 건재기지에서 생산된 건재품들이 구역의 전변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5년전 새로 임명되여 실태를 료해하는 주영철구역당위원장의 가슴은 아팠다. 경기장 하나 번번한것이 없어 체육경기나 구역적인 행사를 할 장소도 없었다. 건설을 하자니 건재기지도 똑똑한것이 없었고 구역에 하나밖에 없는 흥신협동농장은 도적으로도 제일 뒤떨어진 상태였다.

보다 심중한 문제는 일부 일군들의 패배주의관점이였다.

구역이 발족된지 오래지 않고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니 할수 없다는 일군들의 사상관점을 깨지 않고서는 구역사업을 우리 당이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울수 없다는것을 절감한 구역당위원장은 첫 사업으로 경기장건설을 발기하였다.

흥서지구의 수렁땅에 경기장건설의 첫삽을 박을 때 흥흥히 건설되리라고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기본방법이다. 구역당위원회는 바로 사상발동의 방법으로 경기장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우선 녀맹조직부터 발동하였다. 혁명성이 강한 비날론지구의 녀맹원들은 몸집을 깨고 모래와 탄재, 카바이드재를 날라다 펴면서 경기장바닥을 다져나갔다. 안해들의 열성에 감복한 구역안의 세대주들이 발동된 속에 경기장바닥공사는 한달동안에 끝났다.

아직은 체모를 갖추지 못한 경기장에서 구역당위원회는 체육경기를 조직하였다. 대전팀을 특색있게 갈랐다. 동을 단위로 4개 팀으로 나누고 여기에 기관, 기업소들을 배속시켰다. 경기장을 건설하느라 수고한 녀맹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중요하게는 대중에게 자기 힘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기 위해서였다.

온 구역주민들이 모여 진행한 체육경기는 볼만 하였다. 체육경기총화때 구역당위원장은 호소하였다.

우리 사는 고장, 우리 일터는 우리 손으로 꾸려야 한다. 그 누구의 힘을 빌릴데도,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데도 없다. 모든 주민들이 떨쳐나 구역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나가자. …

큰 충격을 받은것은 구역안의 일군들이였다. 이 일을 계기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자각이 높아졌다. 경기장건설은 구역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일군들의 배심있는 작전과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에 의해 경기장의 체모는 날로 달라졌다. 이렇게 되자 수렁땅에 경기장을 건설하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던 사람들까지 스스로 건설판에 뛰어들었다. 1만 수천㎡나 되는 경기장둘레에 철울타리가 생겨났고 관람석과 주석단도 일떠섰다. 경기장둘레로 깊이 낸 물길을 따라 모여드는 물을 리용하여 양어장을 건설할 때는 온 구역주민들이 카바이드등을 켜놓고 야간전투를 벌려 하루밤동안에 끝냈다.

그렇게 건설한 경기장에서 도는 물론 전국적인 체육경기도 진행되니 구역인민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높아졌다. 대중이 자기 힘을 확신하게 되였다. 가장 큰 성과는 행정일군들을 비롯한 구역의 모든 일군들의 머리속에 당정책에 대한 옳은 관점이 선것이다.

무엇이 걸렸소, 우리의 힘으로는 안되오 하는 등의 패배주의적인 목소리가 사라지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모든 일군들이 앞장에서 난관극복의 돌파구를 열어제꼈다.

경기장건설로 패배주의관점에 파렬구를 낸 구역당위원회는 농사를 추켜세우는데서 일군들이 대중발동의 불씨가 되도록 하였다.

구역급기관 책임일군들로 작업반분담안을 작성하고 매주 1차 걸린 문제를 풀어준 정형을 엄격히 총화하였다. 과장이상 일군들에게 부림소와 뜨락또르를 빠짐없이 담당시켜 부림소 영양관리를 개선하고 뜨락또르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구역당위원장부터 농산제1작업반 1분조의 부림소를 맡아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흥신협동농장의 농사에서 비약이 일어났다. 농장은 최근 4년간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많은 애국미를 나라에 바쳤으며 도적인 본보기농장으로 전변되였다. 구역의 일군들이 나라쌀독을 농장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비상한 자각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된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할수 있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구역당위원회는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였다.

오물처리공장을 일떠세워 구역건설에 단단히 이바지하고있는 사실을 보자.

세미천기슭에 여러해동안 쌓인 오물을 처리할 방도를 탐구하던 구역당책임일군은 오물을 재생리용함으로써 오물을 보물로 전환시킬 결심을 품게 되였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 탄재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나오는 카바이드재와 일정한 비률로 섞어 블로크를 만들고 파비닐은 수지일용품공장에 보내여 재생리용하며 식품성오물은 유기질비료로 전환시킬 방도를 찾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구역도시건설대에 과업을 주어 오물더미옆에 블로크찍는기계를 차려놓고 블로크생산을 선행하도록 하였다. 그다음 터전을 닦아 오물처리공장을 일떠세웠다. 일욕심이 많고 연구심이 있는 도시건설대의 녀성작업반장을 대담하게 믿고 오물처리공장사업을 맡겨주었다.

구역당책임일군은 매일과 같이 나와보며 새 건재품개발과 생산에서 한몫하도록 힘을 주고 지혜를 보태주며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크지 않은 오물처리공장이 구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보배공장으로 되였다. 그 결과는 대단히 좋다. 건설자재와 유기질비료, 인민소비품생산이 늘어나고 더우기는 환경오염이 없어져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성과는 이뿐이 아니다. 수원지공사가 완공되여 수천세대의 물문제가 풀리고 은덕소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단위들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아직은 전변의 첫걸음을 내디딘데 불과하다. 하지만 구역의 전망은 대단히 락관적이다. 그 위력한 담보는 사상발동을 만능의 열쇠로 틀어쥐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짜고드는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에 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높은 실력으로 이끌어주어

청진시 송평구역 남석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도 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원만히 할수 있습니다.》

몇해전 12월말이였다.

다음해 농장에서 진행할 영농공정별계획을 토의하는 모임에 참가하였던 현철호리당위원장의 마음은 무거웠다.

실무에 밝지 못하다나니 작업반장, 기술원들이 제출한 대책안을 관리위원장, 기사장에게 문의하는 식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농장에서 당사업을 갓 시작하였다고, 기술실무일군들의 일이라고 여길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체 위안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농사에 대한 해박한 과학기술지식이 없이는 당적지도를 바로할수 없다는 자각이 뇌리를 쳤다.

이때부터 그는 농업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애썼다.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하였다.

오랜 기술일군과 함께 새벽마다 농장포전을 돌아보는것은 그의 어길수 없는 첫 일과이다. 진흙땅에는 어떤 품종이 적합하고 랭습한 모래땅에는 어떤 재배방법이 좋으며 토심이 얕은 산기슭의 비케땅에 자급비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가 등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배웠다. 농장의 자연지리적특성에 알맞는 농사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애쓰는 리당일군앞에 관리위원장, 기사장을 비롯한 행정기술일군들은 저절로 머리가 숙어졌다.

몇해전 봄 박흥일관리위원장이 영양단지에 의한 앞그루밀, 보리재배방법을 받아들일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을 때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그 시기에 앞그루감자심기와 벼모판씨뿌리기, 강냉이영양단지씨앗넣기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조건에서 로력이 긴장한데도 있었지만 처음 해보는 농사방법이여서 신심이 없어했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에 대한 관점이 투철하지 못한데로부터 지난날의 낡고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것이다.

이때 농장원들앞에 나선 사람이 리당위원장이였다. 그는 영양단지에 의한 앞그루밀, 보리재배방법의 우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과학기술적으로 안받침된 당일군의 호소는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새로운 밀, 보리재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모두가 떨쳐나 립체적으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렸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농장원들이 모판만들기와 모기르기, 비료주기를 비롯한 영농공정들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해나가도록 지도를 심화시키였다. 그리하여 종전에 비해 2배이상의 알곡을 증수할수 있게 하였다.

당일군들이 높은 정책적안목과 함께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원만히 할수 있다는것은 농장의 축산을 추켜세운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농장의 집짐승마리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관리일군들에게 양,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집짐승을 많이 기르면 풀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축산을 추켜세울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그들이 새로운 결심을 품고 이 사업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당조직의 실속있는 지도에 의하여 농장의 축산토대가 한층 강화되고 매 가정들에서 집짐승기르기가 활발히 벌어졌다.

최근년간 농장에서 연혁소개실과 농업과학기술보급실, 출판물보급실, 청년학교, 남석원을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은것도 당일군들이 건설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당적으로 밀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기때문이다.

당일군의 실력의 높이이자 당적지도의 실효이다.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지도를 심화시켜 성과를 거두고있는 이곳 당일군들의 사업에는 본받을 점이 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집단주의를 발양시키는데 모를 박고

체신성 정보통신연구소 분초급당위원회에서

얼마전 체신성 정보통신연구소를 찾았을 때 우리와 만난 민정기소장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당조직을 움직이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행정경제사업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5월 어느날이였다.

연구소에 갓 임명되여온 리경수분초급당위원장은 한 행정일군과 담화를 하였다.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년간에 수행해야 할 전투목표를 세워놓은 정형을 료해하던 그는 행정일군에게 그것이 잘 수행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집단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지 못하고있는 문제였다.

행정일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곳에 온지 며칠 되지 않는 분초급당일군이 연구소의 실태를 속속들이 꿰들고있으며 일이 잘 안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도 정확히 하는것이 아닌가.

그 일군은 지난 기간의 사업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년초에 연구소의 전투목표를 세우기에 앞서 그는 우선 모든 실들에서 년간에 해야 할 과학연구목표들부터 높이 세우게 하였다. 실별로 종합된 목표들이 그만하면 높았다. 그에 준하여 연구소의 년간전투목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몇달이 지나도 그 과제수행에서는 큰 전진이 없었다.

분초급당일군의 이야기를 되새겨보느라니 확실히 집단주의 위력으로 난관을 뚫고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일군의 뇌리를 강하게 쳤다.

사실 연구소의 실들마다 연구분야가 같지 않으며 연구사들마다 연구과제도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 목표를 높이 세울 생각만 하였지 그 담당자들인 연구사들의 열의를 발동시킬 생각, 집단의 위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하나하나의 과제들을 최단기간에 수행해낼 생각은 하지 못했던것이다.

《집단의 위력을 높이는것이 곧 사업실적이라는것을 그때 다시한번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소장은 집단의 위력을 발휘해나가도록 행정사업을 적극 떠밀어준 분초급당위원회의 이후 사업에 대하여 들려주었다.

어느날 소장을 찾아온 분초급당위원장은 배구장을 멋들어지게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하였다.

그때 소장은 분초급당위원장의 제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긴장한 과학연구목표수행, 제품생산 그리고 새 청사건설로 바쁜데 언제 배구장건설까지 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분초급당위원장은 자기가 돌격대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 일을 맡아나섰다. 그런 후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짧은 기간에 배구장을 훌륭히 건설해놓았다. 이렇게 갖추어진 배구장에서 단위별배구경기가 진행되였다.

이것이 바로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키게 한 하나의 정치사업이라는것을 행정일군들은 뒤늦게야 깨닫게 되였다. 열기띤 배구경기로 연구소가 끓는 속에 집단의 경쟁열의가 높아져 연구사업에서는 물론 제품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이런 실례는 많다. 새 청사건설에 동원된 전투원들을 발동하여 이미 있던 청사건물의 복도를 잘 꾸리고 층마다 큼직한 거울을 걸어놓아 종업원들이 거기에 자기들의 마음도 비추어보며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는 물론 맡은 일에서도 헌신성과 책임성을 발휘하게 한 사실, 전자도서실을 훌륭히 꾸리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연구사업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게 한 사실, 긍정감화교양의 방법으로 연구성과가 큰 생산으로 이어지게 한 사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심화될수록 성과는 확대되여갔다. 결국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7》에 전송장치연구실에서 내놓은 저밀도파장분할중첩기가 최우수제품으로, 방송장치연구실에서 출품한 주파수변환형10W수자식텔레비존중계기가 우수제품으로 평가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연구소에서 많은 혁신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게 되였다.

결론은 무엇인가.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방법론있게 할 때 단위사업에서 큰 성과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당정책관철의 기수가 되도록

오일광산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오일광산 행정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높아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는 늘 그들이 서있다. 행정일군들의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에 의해 침수된 갱들의 복구와 생산정상화,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광산적으로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그 밑바탕에는 바로 행정일군들의 사업을 뒤받침해주며 기수적역할을 다하도록 떠밀어주고있는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헌신이 깃들어있다.

현실에서 은을 내는 새로운 굴진방법을 적극 일반화하고있다. —남덕청년탄광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비상한 각오와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경제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광산의 실태는 좋지 못하였다.

어려운 조건으로 하여 갱들이 침수되고 설비들도 못쓰게 되였다. 그러다보니 기본광맥을 따라가며 채굴하지 못하고 상부수준에 남아있는 광석만 캐내고있었다.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최석길지배인은 무진 애를 썼다. 했으나 주저앉았던 광산을 일떠세운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바로 그러한 때 류용길초급당위원장이 광산에 임명되여왔다.

그는 지배인이 경제과업수행의 목표와 방향을 명백히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도록 당적으로 적극 밀어주었다.

초급당위원장은 지배인을 만나 광산을 추켜세우는데서 나서는 건설적인 의견을 주기도 하고 일단 결심한것은 끝장을 볼때까지 내밀도록 이끌어주었다.

광산을 추켜세우는 사업이 잘되지 않을 때에는 지배인보다 더 안타까와하며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게 뛰여다니였다.

언제인가 침수된 갱을 복구하던 때의 일이였다. 어느 한 설비가 뜻밖의 일로 동음을 멈추었다. 그것을 살리지 못하면 갱복구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그 설비를 살려본 기술자가 광산에 없었다. 기술일군들이 신심이 없어하니 지배인도 난감해하였다.

이런 때 초급당일군이 기술자, 기능공들속에 들어갔다. 아무리 복잡한 설비라고 해도 원리야 어디 가겠는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이에 힘을 얻은 공무직장 전기기계작업반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힘과 지혜를 합쳐 한주일만에 그 설비를 살려내고야말았다. 그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공무직장에서는 압축기와 권양기, 전동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원만히 수리할수 있는 토대를 훌륭히 갖추어놓았다.

이런 실례는 많다.

침수된 갱들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 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사업, 선광장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함께 문화회관건설, 종업원들의 생활상애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들이 현재 광산적으로 적극 추진되고있는데 여기서 행정일군들의 기수적역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그들이 전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진행해나가도록 초급당위원회는 계속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이곳 초급당일군들처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해나갈 때 단위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뚜렷한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된다.

본사기자 채인철

산림복구전투에서 발휘된 창조적인 사업기풍

리원군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입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리원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수행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몇해동안에만도 이들은 수천정보의 산에 수백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산림보호사업을 잘하여 산림복구전투를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 성과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나무모생산과 잣접림면적을 늘이기 위한 사업, 산림보호사업을 방법론있게 조직전개한 일군들의 과학적이며 창조적인 사업기풍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전투승리의 담보는 선진기술도입

산림복구전투를 앞당겨 끝내자면 우리 군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제기한 군당책임일군은 군안의 산림복구전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을 찾으시여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는것은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 첫 공정이라고 하시며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야 온 나라의 산을 푸르게 할수 있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책임일군은 자책이 컸다.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되새겨볼수록 산림복구전투승리를 담보할수 있는 나무모생산에서 미약한 점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군의 산림복구전투실태를 놓고볼 때 한해에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나무모가 부족하였다. 모체양묘장과 몇개의 양묘장들에서 최대한 생산을 높인다고 해도 산림복구전투에 필요한 나무모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었다. 더우기 심은 후의 사름률까지 고려하면 나무모가 어방없이 모자랐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적방도를 모색했다. 이 과정에 그들은 양묘장에서 3-4년동안 키워 옮겨심던 창성이깔나무모를 한해동안에 키워낼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그런데 한가지 난문제가 있었다. 합격나무모로 키워내는데 필요한 영양성분을 보장할 방도가 없는것이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애써 사색하고 노력하면 방도가 나오기마련이다.

일군들은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온실에서 집약적으로 나무모를 키운 다음 영양단지에 옮겨심어 자래우는 방법을 찾아내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무모가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성분을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군산림경영소에서는 온실에서 2월에 씨뿌리기를 진행하여 일정한 기간 키운 나무모를 5월에 영양단지에 옮겨심었다.

군일군들은 이 방법이 은을 낼수 있게 경영소자체로 팽화질석을 생산리용하도록 떠밀어주었다. 이것을 경영소의 나무모밭에 실어낸 결과는 좋았다. 얼마든지 1년동안에 합격기준에 도달할수 있는 창성이깔나무모를 키워낼수 있었다.

새로운 잣접방법을 연구도입한 성과도 일군들이 과학기술을 앞세운데 있다.

소나무를 잣나무로 만드는 사업을 근기있게 해나가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잣접림을 찾으시여 주신 현지교시이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는 길에 군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근본방도가 있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지난 시기의 잣접방법을 분석해보았다.

불리한 점이 많았다. 품이 많이 들고 사름률이 높지 못했던것이다. 종전에는 1월에 잣나무순을 잘라 저장고에 보관하였다가 4월 하순부터 5월사이에 접하군 하였다. 저장고에 얼음을 넣고 잣나무순보관에 필요한 온도를 보장하는 복잡한 공정도 거쳐야 하였다. 이렇게 많은 품을 들였어도 부패되는 잣나무순이 많았다. 이런 실정에서는 잣접성공률을 높일수 없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였다. 그 방도는 오직 새로운 잣접방법을 연구개발하여 받아들이는데 있었다.

지난 시기에 혁신적인 방법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자만하면서 급속히 발전하는 오늘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높이 비약할수 없다.

찾은 교훈은 일군들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었다.

일군들은 기술자들속에 들어가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며 방도를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 기술자들속에서 잣나무순을 보관하였다가 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지에서 자른 즉시 접해보자는 창발적의견이 나왔다.

가능성이 있었다. 일군들은 잣접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곧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사업이라고 하면서 대담하게 달라붙도록 추동하였다. 그들은 기술자, 기능공들과 함께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단계별계획을 세우고 잣접시험을 시작하였다.

그후 현지를 돌아보던 그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3월에 접한 잣나무순의 사름률이 높았던것이다. 성공이였다.

그들은 이 경험에 기초하여 크기가 각이한 소나무들에 잣접을 하였다. 그 과정에 7-10년 자란 소나무에 20년이상 자란 잣나무웃부분의 순을 잘라 접하였을 때 사름률이 제일 높다는 기술적담보를 찾아쥐게 되였다.

새로운 잣접방법은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잣나무순을 잘라 저장움을 만들고 온도보장을 위해 들이던 많은 로력이 절약되였다. 중요하게는 종전에 비해 사름률이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잣접림면적을 지난 시기에 비해 해마다 훨씬 더 늘일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군안의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 지름길은 과학기술에 있다. 이것이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수행에서 성과를 거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겨안은 진리이다.

산림보호이자 산림조성이다

리원군에서 산림복구전투의 성과가 확대되는 비결의 하나가 산림보호사업을 잘한데 있다. 그러면 군의 산림보호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산림보호사업에서 선차적인 요구로 나서는 산불방지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는것이다.

군일군들은 군안의 모든 주민들에게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어 그들이 높은 애국심을 안고 산불방지사업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각성되고 동원된 군중의 노력, 애국으로 충만된 그들의 주인다운 역할이야말로 산불피해로부터 산림을 지켜낼수 있는 위력한 힘이다. 문제를 이렇게 본 군일군들은 군안의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산불방지에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지난 시기에는 이 사업이 아래단위들에 산불방지와 관련된 해설자료를 내려보내주고 그 진행정형을 료해총화하는 식으로 하였다. 그러다나니 일부 단위들에서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일군들은 산불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립장에서 산불방지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일군들이 군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모든 단위들에 나가 산림보호사업에서 산불방지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려나갔다. 결과 군안의 모든 주민들이 높은 자각과 열정을 안고 산불방지를 위한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이 사업에 발벗고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앙양된 군중의 열의에 맞게 산불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갔다.

먼저 산불감시초소들의 위치를 군의 실정에 맞게 다시 정하였다. 일군들은 산불감시초소들의 감시면적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사실 지난 시기에는 수십정보에 한개씩 산불감시초소들을 골고루 배치하였는데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 산불이 발생할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곳에서는 감시원들이 하루종일 뛰여다녀도 맡은 면적을 구체적으로 감시할수 없었다. 그러나 감시초소위치를 달리 정한 때부터는 맡은 일을 더 책임적으로 할수 있었다.

일군들은 산림감독원들과 산불감시원, 산림순시원들이 맡은 일을 보다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특히 이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 대덕, 문암리 등 혁명사적지구역의 산림감독원들이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군일군들은 정상적으로 산불감시초소들에 나가 이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었다. 특히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그것을 제때에 련락할수 있도록 모든 감시원들에게 필요한 통신기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었다. 결과 군에서는 산불감시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이룩할수 있었다.

이룩한 성과가 도약대로 되여야 더 높이 비약할수 있다.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인 일군들은 산불진압을 위한 군중동원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세우기 위한 사업도 틀어쥐고 내밀었다. 일단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이 넓은 지역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제때에 끄는것은 산불방지대책을 세우는 사업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러자면 빠른 시간에 인원과 기재가 해당 지역에 도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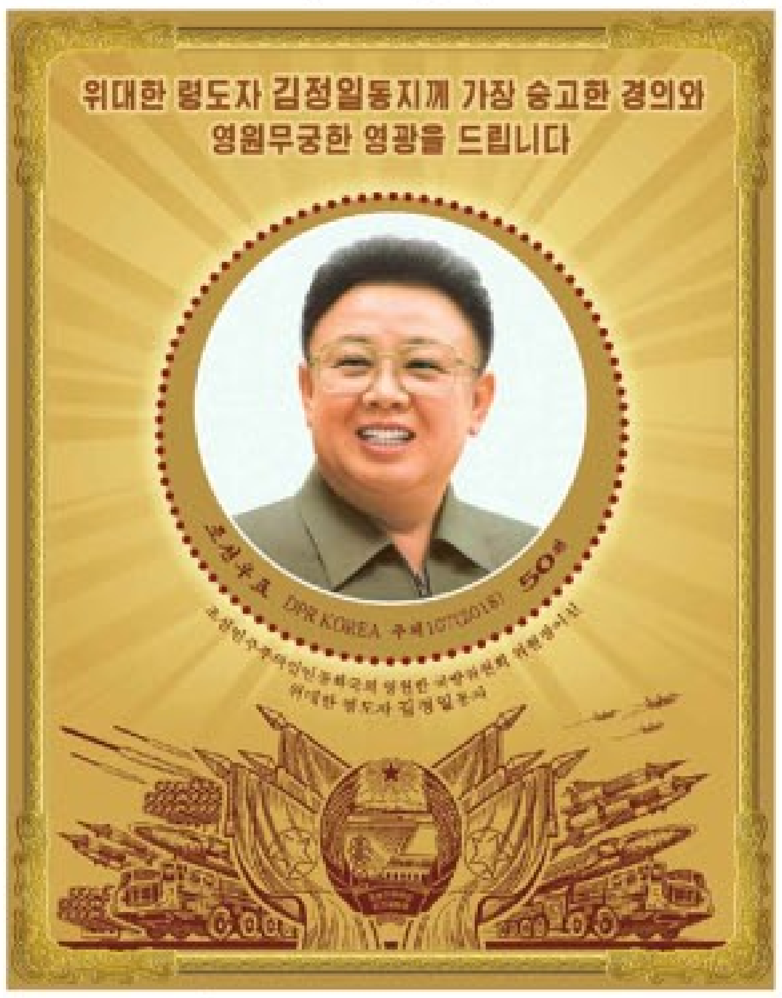
결국 시간을 얼마나 빨리 쟁취하는가에 따라 산불진압작전의 승패가 좌우된다. 이것을 예민하게 포착한 군일군들은 이미 조직된 방화대에 로력을 추가적으로 보충해주는 사업, 필요한 불끄기재들을 임의의 시각에 동원시킬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기 위한 사업 등 사전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갔다. 결과 산불발생지역으로 그 주변의 인원과 기재들을 신속히 전개하는것과 동시에 군적인 력량을 빠른 시간안에 도착시켜 전투에 진입할수 있게 되였다.

산림복구전투가 힘있게 전개되고있는 오늘날 산불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산림조성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단 한그루의 나무도 산불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다 정연한 감시 및 군중동원체계를 세워나간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진취적이다.

모든 일군들이 리원군일군들처럼 산림복구전투작전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간다면 내 조국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는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리충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5돐을 맞으며 우표 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5돐을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새 우표(소형전지 1종)를 발행하였다.

소형전지의 중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웃부분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고 아래부분에는 우리 공화국의 영예와 존엄, 불패의 군력을 상징한 그림이 직관적으로 형상되여있다.

새로 발행된 우표는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보여주고있다.

태 양 절 경 축

조선우표 집중전시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이며 인류공동의 혁명적명절인 뜻깊은 태양절을 경축하여 8일 조선우표전시장에 조선우표들이 집중전시되였다.

전시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우표를 반영한 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주체의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집중전시된 수백종의 우표들은 격동하는 20세기를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세기로 빛내이시고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고있다.

주체년호, 태양절제정기념우표들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경축하여 발행된 우표들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태양을 맞이한 민족대통운의 날이 있어 현대조선의 새 기원이 열리고 진보적인류의 앞길에 자주시대의 려명이 밝아왔음을 보여주고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장 70성상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80돐 기념》, 《민족의 태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돐 기념》, 《전군의 나날에》를 비롯한 우표들도 있다.

우표 《검덕광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창조 45돐》 등은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공장길, 농장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인민적수령의 고매한 풍모를 감명깊게 전하고있다.

몸소 중국의 로세대령도자들과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시며 조중친선의 깊고도 오랜 력사적뿌리를 마련해주시고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내용을 반영한 우표들은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만민이 우러르는 가장 걸출한 령도자, 희세의 정치원로이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집중전시된 우표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며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우표집중전시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제29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제29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마라손, 반마라손, 10㎞, 5㎞달리기로 나뉘여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마로끄, 짐바브웨, 케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선수들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수많은 마라손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이 8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있었다.

《제29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글발이 대형전광판에 현시되여있었다.

개막식에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라손협회 위원장인 건설건재공업상 박훈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시안의 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외국손님들이 참가하였다.

체육상 김일국동지가 개막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는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마라손선수들과 애호가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그리움을 안고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를 달리면서 자주, 평화, 친선의 숭고한 리념밑에 우의와 련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위인칭송의 국제경기무대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모든 선수들과 애호가들이 강의한 의지와 인내력,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쟁취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제29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 개막을 선언하였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노래주악이 울리는 속에 경기대회기발이 게양되였다.

이어 경기가 있었다.

신호총소리가 울리자 출발선을 떠난 남, 녀선수들과 애호가들은 평시에 련마한 기술과 강의한 정신력, 완강한 인내력을 최대로 발휘하며 주로의 전구간을 힘차게 달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를 높이며 수도의 거리들을 누벼나가는 그들에게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손을 흔들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마라손과 반마라손경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남, 녀선수들이 금, 은, 동메달을 쟁취하였다.

애호가들의 마라손경기에서는 영국의 트브스 휴 새무얼(남자), 단마르크의 엘머슨 스타인 로라 말드바크(녀자)가 1등을, 스웨리예의 스벤 렐린(남자), 중국 대북의 대희향(녀자)이 2등을, 영국의 젤리 대니얼 패트리크(남자), 단마르크의 디테릭센 라인 메즈카예르(녀자)가 3등을 하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폐막식이 있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애호가들에게 컵과 메달, 상장, 증서가 수여되였다.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하려는 진보적인류의 지향과 념원이 강렬해지는 속에 진행된 제29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 체육인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덕성발표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5돐을 맞으며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덕성발표모임이 8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창엽동지, 황해북도당위원회 부위원장 리일혁동지, 관계부문, 사리원시안의 농근맹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송윤희동지, 함흥남새전문농장 온실분장장 전금옥동지, 구성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 분조장 조종연동지, 북청군 룡전과수농장 농장원 리정희동지가 출연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조국의 북단으로부터 분계연선의 자그마한 농촌마을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농촌전야마다에 뜨겁게 새겨져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세기에 들어와서만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여러차례나 찾아주시고 나의 정든 농장이라 하시면서 미곡땅에 사회주의농촌의 훌륭한 모습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곡협동농장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논벼정보당 10t을 무조건 생산함으로써 전국의 앞장에서 나갈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려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함흥남새전문농장에도 뜨겁게 새겨져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주체100(2011)년 12월 맵짠 추위속에서도 함흥시 회상지구농장 남새온실(당시)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산량과 공급정형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당정책관철에서 함경남도가 모범이며 제일 앞장섰다고 하시면서 남새온실의 관리운영사업을 짜고들어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함흥남새전문농장의 자랑찬 전변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한평생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뜨거운 사랑속에 이룩된 고귀한 결정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몸소 농장에 찾아오시어 축산업발전의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구성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이 현대적인 축산기지로 전변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100(2011)년 5월 북청군 룡전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일나무모보장과 기계화문제를 비롯하여 과학과수의 기치를 들고 나라의 과수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어버이장군님께서 그해 10월 또다시 룡전땅을 찾으시고 아지마다 주렁진 빨간 사과들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며 봄날의 약속대로 몸소 사과맛까지 보아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농업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어버이장군님의 체취와 숨결이 어려있는 사회주의대지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근로자의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중시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일군들의 사업에서

우리 식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일군들과 교원들이 창조하고있는 새 교수방법이 혁신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교육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교육방법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입니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교수의 실효를 높이나가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잘해나가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대학에서는 새 교수방법창조를 위한 사업에서 교원들이 교수안을 완전히 통달하고 그에 기초하여 강의를 설득력있게 진행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왔다.

하지만 교원들이 교수안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하여 그 지식이 곧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였다고 말할수는 없는것이다.

대학의 일군들이 학생들이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다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려고 결심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여기서 일군들이 틀어쥔 중심고리는 강의가 학생들의 주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하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강의에서 학생들의 역할을 보다 높여 그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자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관심을 돌린것이 바로 교원들이 다음번 강의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한 예습과제제시를 잘하도록 하는것이였다.

하다면 대학에서는 교원들이 예습과제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제시하도록 하였는가.

교원들은 강의시간에 학생들이 다음번 시간에 배울 강의내용을 학습해오는 원칙에서 예습과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도 과제의 내용을 학생들이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데 실례로 질병진단과 관련한 학습이라고 할 때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느 계통의 장기가 장애가 되여 생겨나게 되는가 등 물음을 여러 각도에서 제시해주고 이 문제를 풀자면 병리학적으로는 어떤 책을 보아야 하며 병태생리학적으로는 어느 참고서를 리용하여야 한다는것, 또 이 학문의 기초과목으로는 어떤 내용을 참고해야 하며 린접과목에서는 어느 교재의 어느 부분을 학습하면 된다는것 등 예습과제를 폭넓고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이렇게 예습과제를 제시한 기초우에서 교원들은 학생들이 예습해온 내용을 보다 원리적으로 인식하는데서도 그들의 주동적이며 의식적인 역할을 중시해나갔다.

먼저 교원은 강의시간에 임의의 여러 학생들을 지적하여 과제수행정형에 대하여 발표하게 하였다.

다음 그 학생의 대답에서 잘된 점은 무엇이고 부족점은 어떤것인가를 학생들스스로가 찾아내도록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제시하여 강의가 물음과 대답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나갔다.

결국 예습정형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와 주동적인 질문, 그에 대한 토론과 론쟁으로 강의가 이어진것이다.

그러면 이 교수방법이 학생들의 실력향상에서 어떤 은을 내게 되였는가.

우선 강의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강의내용을 짧은 시간에 완전히 파악하게 되였다. 학생들의 학습열의는 물론 발표능력도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평상시성적도 눈에 띄게 올라가게 되였다.

보다 좋은것은 학생들이 예습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강의내용을 파악할수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강의준비에 보다 품을 들이게 되였는데 이것은 곧 교정안에 학습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중요한 계기로도 되였다.

우리와 만난 대학의 한 일군은 이 교수방법이 도입되면서 처음에는 강의가 좀 처지는감이 있었으나 학생들의 학습열의가 높아지고 교원과 학생의 호흡이 맞아진 지금에 와서는 교수립도도 원만히 보장되고 그 질도 한계단 끌어올릴수 있게 되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열의가 높아지니 그에 따라 교원들도 교수준비에 더 많은 품을 들이게 되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새 교수방법창조열풍으로 이어져 대학안에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날로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일군들이 잘한 점이 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예습시간을 비롯한 학습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문제를 중요하게 틀어쥔것이였다.

대학에서는 교수지도부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는것과 함께 다양한 과외교육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학생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갔다.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데서 대학일군들이 틀어쥔 또 하나의 기본고리는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목적지향성있게 잘해나가고 있는것이다.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은 교원들의 높은 자질을 토대로 할 때만이 성과를 거둘수 있다.

여기서는 보여주기사업과 교수방법심의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함으로써 교원들속에서 새 교수방법창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간것이 좋았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선 대학에서는 강좌별, 학부별, 학부별로 새 교수방법창조에서 모범적인 교원들을 선발하여 교수방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다음 거기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수방법들을 대학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잘해나갔다.

또한 대학일군들이 매주 2차이상 교수참관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교수방법심의를 의의있게 조직함으로써 우수한 교수방법들을 적극 찾아내고 강의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갔다.

뿐만아니라 새 교수방법창조자대렬을 더욱 늘이는것과 함께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수방법을 부단히 혁신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적으로 잘해나간것도 매우 시사적이였다.

대학일군들은 교원들의 높아가는 새 교수방법탐구열의를 적극 북돋아주기 위한 총화평가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렸다.

대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점수제로 진행하여오는 교육사업평가기준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세분화하고 새 교수방법탐구와 교육과학연구사업 등의 항목들에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대학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모범적인 교원들과 강좌들에 대한 정치적평가와 물질적평가사업을 잘하여 교원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더한층 높여주었다.

이밖에도 대학에서는 교수안통말경연, 교수요강과 교수안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갔다.

이처럼 대학일군들이 새 교수방법창조를 위한 사업을 짜고든 결과 학생들의 실력은 부쩍 올라갔으며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교육사업에서 결코 만족이란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해나가는 이곳 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는 나라의 의학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민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원 산 시 에 서

원산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공민적자각으로부터 공장애, 향토애, 조국애를 지니고 자기 마을과 거리, 공장과 일터, 자기 군과 도, 조국산천을 사랑하며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뜨거운 조국애와 향토애를 지니고 자기가 살며 일하는 거리와 마을, 일터를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에서는 단계별꾸리기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시안의 기관,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 잘 꾸리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원산구두공장과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비롯한 명도 업적단위들이 공장안과을 알뜰하게 꾸려 시적으로 제일 앞서나가는 단위로 이름떨치고있다.

시안의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건물들과 울타리보수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알아보고 시급히 대책을 세우고 구내길정리와 나무심기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고있다.

시안의 동, 인민반들에서 불타는 향토애를 안고 모두가 떨쳐나 살림집건물들에 대한 보수와 외장재바르기를 집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도로옆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관목들을 심고 가꾸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장덕동과 장촌동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동, 인민반들에서 생땅이 드러난 곳에 새 품종의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들을 심고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이밖에도 시에서는 상하수도망들과 위생시설물들에 대한 보수대책도 잘 세우고 생활환경을 보다 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꾸려나가려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시의 면모는 날을 따라 더욱 새로와지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독자의 편지

나의 친아들들입니다

지난해 6월 어느날 저의 집에 낯모를 한 인민군군관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영문을 몰라하자 그는 집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서 여러 방들과 부엌, 세면장 등을 돌아보더니 집문을 나섰습니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여러명의 인민군군관들이 자동차에 세멘트와 모래, 타일 등을 싣고 저의 집에 온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의 배려로 훌륭한 집에서 불편한것이 없이 사는데 왜 그러는가고 하자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으시어 나라의 보배인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였다고 하면서 일손을 잡는것이였습니다.

사실 해당 부문에서 공화국영웅이며 영예군인이고 아들도 영예군인인 우리 가정생활에 관심을 돌려주어 별로 애로되는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은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방칸도록 방과 복도, 부엌, 위생실, 세면장 등의 벽을 모두 긁어내는것이였습니다. 그러더니 미장을 하고 세면장과 위생실에는 석조화를 맞춰가며 타일을 붙이였습니다.

또한 벽지도 좋은것으로 바르고 문손잡이들은 물론 수도꼭지도 새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때만이 아니였습니다. 올해 2월에도 여러가지 많은 식료품들을 가지고 우리 집에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에야 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는 그들이 인민군군관들인 리삼룡, 고광학, 한광혁, 석명관, 류근철동무들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정말이지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데서도, 사상과 도덕에서도 제일인 이런 인민군군인들을 저는 나의 친아들들이라고 소리높이 자랑합니다.

동대원구역 문신1동 74인민반
공화국영웅 박 동 섭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온 나라 강산에 만발하는 불멸의 꽃

다함없는 흠모와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지난 1월 어느날이였다.

지속되는 강추위는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온실종업원들의 의지를 시험하려는듯 날이 갈수록 더더욱 기승을 부리였다. 꽃눈이 빨리 생기게 하는 촉진제를 방금 받아들인 뒤여서 온실의 온도를 표준대로 보장하는것이 매우 중요하게 나섰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들은 날씨가 추워진데 맞게 비닐박막으로 보온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적어도 열흘동안은 온도를 잘 보장해야 꽃대가 나올수 있었던것이다.

밤깊도록 온실에서 김일성화의 생육상태를 자세히 관찰하며 어떻게 하면 온도를 더 올릴수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골몰하는 하현명책임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이런 때 느닷없이 련합기업소당위원장이 온실에 찾아왔다. 온실안을 돌아보며 온도를 가늠해본 그는 책임자에게 조건은 좀 어려워도 우리 힘을 합쳐 불멸의 꽃을 활짝 피워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하자고 하면서 신심을 주었다.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은 책임자는 좀은 좀 들어도 방열설비를 더 놓을것을 결심하고 온실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온실종업원들은 련합기업소의 방조속에 방열설비를 증설하는 사업을 전격적으로 해제끼였다. 재배공들인 조성림, 고수련동무들은 표준온도에서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훌륭히 키우는데 자기의 열정과 헌신의 땀방울을 아끼지 않았다.

꽃망울이 하나둘 맺히기 시작했다. 이들의 기쁨은 헤아릴수 없이 컸다. 그럴수록 온도와 빛, 습도보장과 환기에 보다 큰 힘을 기울이였다.

특히 열관리공인 홍광남동무는 흐린 날일 때에는 온도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그는 누가 보건말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보이라의 열조절을 신축성있게 해나갔다. 그리하여 강추위속에서도 종전보다 열효률을 훨씬 높여 김일성화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였다.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은 수시로 온실에 찾아와 김일성화의 생육상태를 알아보면서 걸린 문제를 즉시에 풀어주군 하였다. 재배공들은 태양의 꽃을 가꾸는 남다른 긍지안고 비료를 구새이 맞게 주면서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합리적인 방법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김일성화를 아름답게 피워갔다. 이와 함께 온실에 청신한 공기가 흐르도록 하는 사업도 놓치지 않고 내밀었다.

그리하여 온실에는 백수십상의 김일성화가 활짝 피어나게 되였다.

하현명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 저희들만이 키워낸것이라고 하겠습니까. 한송이한송이의 김일성화들에는 우리 련합기업소 모든 종업원들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순결한 충정이 그대로 어려있습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오철훈

꽃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평안북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

얼마전 우리는 평안북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를 찾았다. 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마음에 의하여 도급기관들과 시, 군의 온실들에 김일성화가 아름답게 피었다고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화를 잘 키워 대대손손 길이 전하며 김일성화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만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올해 정초 위원회에서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아름답게 키우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그 첫 사업으로서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온실들과 시, 군들에 있는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들에서 필요되는 시약들을 충분히 공급해주도록 하였다.

위원회 부원 하명국동무는 도인민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도무역관리국, 평북종합대학 차광수제1사범대학을 비롯한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들과 신의주시, 향산, 운산, 구장, 동창, 동림, 의주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온실들에 나가 꽃재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보여주기사업도 진행하면서 그곳 일군들과 원예사들이 불멸의 꽃을 아름답게 키워내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온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불멸의 꽃을 더 잘 키우기 위해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다.

그들은 먼저 온습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힘을 넣었다. 례년에 보기 드문 강추위로 물보장조건이 불리해지자 그들은 합리적인 방법들을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온실들에 충분한 온습도를 보장할수 있었다.

영양관리를 잘하는것도 온습도보장에 못지 않게 중요하였다.

이들은 앞선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꽃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키워나갔다.

3월에 들어서면서 온실의 공기가 건조한것으로 하여 병해충이 발생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종업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면서 식물성농약을 자체로 제조하여 분무해주는 방법으로 병해충구제사업을 진행하였다.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아름답게 키워 올해의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전시회에 내놓으려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충정의 마음은 자랑찬 결실을 안아오게 되였다.

도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만이 아니였다. 도인민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평북종합대학 차광수제1사범대학을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온실들에서도 불멸의 꽃 김일성화는 앞을 다투어 아름답게 피여나고있다.

신의주시와 향산, 구장군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시, 군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들에서도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치며 전진하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다함없는 충정심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특파기자 송창윤

그 마음 자양분이 되여

위인칭송의 꽃들을 더욱 훌륭히 키우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함흥모방직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일성화를 키우고 보급하는 과정이 단순히 희귀한 꽃을 키우고 보급하는 과정이 아니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고 높이 발휘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가 불멸의 꽃을 키우는 사업에서도 응당 앞장에 서야 한다.

이것은 이곳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늘 심장에 새기고 내세우고있는 목표이기도 하다.

함흥모방직공장은 지금까지 도에서 진행된 불멸의 꽃전시회에서 늘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하다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10여년전 공장당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욱희동무의 생각은 깊어갔다.

(어떻게 하면 불멸의 꽃을 더 아름답게 피울것인가?)

그는 먼저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현대적으로 건설할것을 발기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녀성종업원들이 대다수이고 교대작업을 하여야 하는 공장의 특성으로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그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종업원들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온실건설에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쳤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온실을 훌륭히 건설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군들은 불멸의 꽃재배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보장해주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그들은 불멸의 꽃들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한 온도보장과 영양관리, 비료주기와 시약처리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었다.

출장길에서도 불멸의 꽃재배와 관련한 자료들을 구입하고 전문가들과 경험있는 원예사들을 만나 기술을 습득하여 재배공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줄 때면 한 공장의 일군들이라기보다 식물학분야의 연구사같기도 하였다.

몇해전 온실보이라가 터졌을 때에도 일부 사람들은 그저 보수나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여왔다.

그러나 일군들의 생각은 달랐다. 절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꽃들을 피워가는 온실은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로동자들과 함께 대담하게 보이라를 개조하였다.

종업원들은 수천개의 화분을 생산할수 있는 로를 건설하여 불멸의 꽃들을 더 훌륭히 키울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 림향세, 한영옥동무를 비롯한 온실작업반원들은 석탄을 훨씬 절약할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였다.

그들의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불멸의 꽃들은 하루가 다르게 아름답게 피여나 해마다 도에서 진행된 불멸의 꽃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에 새겨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불멸의 꽃들을 더욱 아름답게 피워가고있다.

특파기자 김정철

열화와 같은 충정으로 이어온 날과 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일성화는 나라의 국보이며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얼마전 염주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찾은 우리는 군의 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김일성화재배장으로 향하였다.

꽃대마다 피여난 꽃이 10송이를 넘는다는 말을 들으며 놀라움을 표시하는 우리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직 더 많은 꽃송이들이 피여나야 합니다. 지금의 온습도조건에서 보통 2-3일에 한송이씩 피여나는것만큼 전시회장에는 15송이이상 피여난 불멸의 꽃을 내놓을수 있습니다. …》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가 원예사 못지 않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가 하는 의혹을 감출수 없었다.

우리의 생각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백영옥온실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부터 꽃은 사랑의 마음으로 키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태양의 꽃을 어떻게 우리 한두명의 노력과 기술로만 키울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이 모든 성과는 온실종업원들만이 아니라 군안의 전체 일군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안아온것입니다.》

계속하여 그는 지난해말 강추위가 들이닥칠것 같다는것을 알게 된 군의 일군들이 제일먼저 달려온 곳도 바로 여기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이라고, 짧은 시일안에 보이라의 능력을 두배로 높여주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매일 아침저녁으로 온습도보장정형과 꽃생육상태에 대하여 알아보는 일군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신들의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군 했다고 말하였다.

온실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알아보며 재배에 대책을 세워주는 과정에 일군들도 어느덧 전문가 못지 않게 재배기술과 방법을 터득할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온실에는 이곳 종업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후생시설들도 손색없이 꾸려져있었다.

온실의 넓은 부지를 그대로 재배에 리용하면서도 후생시설들까지 손색없이 꾸려놓은것이 참으로 특색있었다.

돌아볼수록 불멸의 꽃을 더욱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바쳐온 이곳 종업원들과 군안의 인민들의 수고가 헤아려져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에 불타는 마음들이 그대로 빛과 열이 되어 김일성화는 사나운 강추위도 이겨내고 더욱 활짝 피여날수 있었던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더욱 아름답게 펼쳐질 태양의 꽃바다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우리는 온실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성룡

하나의 지향

황해남도감자조직배양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주체조선의 영상으로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크나큰 혁명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황해남도감자조직배양공장 온실에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활짝 피여났다.

태양절을 앞두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아름답게 피여나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의 송이들마다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사는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의 충정의 마음이 뜨겁게 비껴있다.

온실관리공 오명희동무는 김일성화를 키우는데 자신의 온넋과 심혈을 다 바쳤다. 밤을 새워가며 재배기술을 익히고 여러 단위들을 찾아다니며 앞선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걸은 길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오명희동무만이 아니다.

온실관리공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누구보다 헤아려준 사람들은 도농촌경리위원회 당일군들이였다. 이들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온실에 자주 나와보고 김일성화재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협의회도 여러차례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기술도서들과 해당한 대책들도 기동성있게 세워주었다.

일군들은 밤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날에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보고 긴급대책을 세워주느라 애썼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 활짝 피운 불멸의 꽃 김일성화의 아름다운 모습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어리여있다.

강추위가 들이닥쳤던 지난 1월 어느날 밤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떨쳐나 나래와 박막을 뭄뭄히 여며주며 지성을 다하였다.

또한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무동력보이라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낮시간은 물론 밤시간에도 최적온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지배인 윤지웅동무는 뢰타는 탐구와 정열을 바쳐 김일성화재배에 절실히 필요한 영양액을 자체로 만들어 뿌리의 활성을 높여줌으로써 초기생육을 좋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듯 불멸의 꽃재배에 자신들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온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고결한 마음은 그대로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 온실에서는 김일성화가 날이 갈수록 더욱 활짝 피여나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불같은 헌신으로 안아온 탐구의 열매

체육성 체육시설설계연구소 녀성설계가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체육성 체육시설설계연구소에 가면 한 녀성설계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함께 일하는 설계가들과 일군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는 과연 어떤 녀성인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고압온수가열기라는 하나의 설비에 대한 상식부터 전하게 된다.

고압온수가열기는 건물의 난방과 생활에 필요한 온수를 보장하는 효률높은 물가열설비이다.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물가열속도가 빠르고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운영이 편리한것으로 하여 이 제품에 대한 호평은 대단하다.

우리 생활에 절실히 필요하며 실용적가치도 큰 이러한 설비를 개발한 주인공이 바로 체육성 체육시설설계연구소의 현정숙설계가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안고 그 관철을 위한 길에 순결한 량심을 바친 한 녀성설계가, 그의 헌신의 자욱을 새겨보며 우리는 이 땅우에 일떠서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 시대를 돋음이며 무수히 태여나는 창조의 열매들에 비낀 우리 과학자들의 말없는 수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머리숙이게 된다.

현정숙설계가가 온수가열기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작하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이였다. 그때 그는 한 일군으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영선수들이 물온도가 낮은데서 훈련하는것을 걱정하시여 어느 한 수영경기관에 전기보이라를 놓아줄데 대한 은정어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를 비롯한 연구소의 일군들과 설계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전해들으며 체육시설들에 대한 설계를 바로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하여 전기부분에 대한 설계를 맡아보던 현정숙동무가 수영경기관으로 달려나갔다. 현지에 도착하여 온수가열기에 대한 설계를 하자고보니 선뜻 일에 접어들수가 없었다.

당시 어느 한 공장에서 생산리용되던 온수가열기는 열의 손실이 많고 물가열속도도 빠르지 못하였다. 그나마도 가동을 시작하여 얼마 못 가서는 효률이 크게 떨어지기때문에 구관을 자주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여기에다 변압기를 비롯한 보조설비들이 많은것으로 하여 전기랑비현상도 많았다.

나라의 전기사정이 긴장한 때에 이런 온수가열기를 설계하자니 설계원의 량심이 허락하지 않았던것이다. 더우기 우리 체육인들에게 더 좋은 훈련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진행하는 연구사업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결심을 내릴수 없었다.

(내 기어이 새로운 온수가열기를 개발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체육인들에게 가닿도록 하고야말리라.)

종전의 온수가열기를 설계하여 만들수 있게만 하여도 응당한 평가를 받을수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했다.

아직은 누구도 해보지 못한 연구사업이여서 경험적인 이야기를 들을데도 없었고 문헌자료조차 없었다. 그만큼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 연구사업을 단순한 과학연구사업으로 보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체육인들에게 가닿게 하여야 할 책임이 다름아닌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사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효률을 높이는것이였다. 그러자면 물가열속도를 빠르게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았다.

이 분야의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그가 조사한 문헌자료만 해도 그 얼마이고 남모르게 걸은 길은 얼마인지 모른다. 때로는 지방의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며칠밤을 지새우며 필요한 설비를 제작하였고 설계의 기술적지표들을 확정하기 위해 며칠이고 해당 일군들을 찾아다니며 토론하였다.

그렇게 고심어린 탐구로 마련한 설비의 첫 시험에서 실패하였을 때 그는 너무도 안타까와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못쓰게 된 온수가열기앞에 맥을 놓고 앉아있는 그에게 연구소의 당일군이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정숙동무,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무가 새롭게 개발한 온수가열기를 기다리고계신다고 생각하고 힘을 내오.》

그는 용기를 내여 일어나 다시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체육시설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그의 연구사업을 힘껏 도와나섰다.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의 기술자들과 토론과 론쟁으로 새날을 맞이하기를 그 몇번, 이런 불같은 열정과 사색과 탐구로 낮과 밤을 이어온 그였기에 그는 마침내 물가열속도를 빠르게 하면서도 변압기를 쓰지 않는 새로운 온수가열기를 개발할수 있었다. 하여 수영경기관의 물온도를 선수들의 훈련조건에 맞게 보장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훌륭히 관철할수 있었다.

그는 이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체로 개발한 고압온수가열기를 체육시설들과 여러 단위들에 도입하면서 실리에 맞게 더욱 완성해나갔다.

이 헌신적인 탐구의 나날에 그는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에 참가하게 되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이 땅우에 흘러가는 투쟁과 생활의 갈피갈피에는 이렇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탐구의 자욱이 무수히 새겨져있다. 우리는 훌륭한 체육시설들을 창조하기 위해 한생을 묵묵히 바쳐 조국앞에 자신이 지닌 과학자의 의무를 다해나가고있는 현정숙설계가를 통하여 당의 뜻과 시대의 요구앞에 자신의 심장을 내대는 우리 과학자들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된다.

본사기자 박현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여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나간다.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에서— 김광림 찍음

량심으로 걷는 애국의 한길

강서탄광 로동자 김윤옥동무

두해전 9월에 있은 일이다.

북방의 가을은 벌써 찬 기운을 풍기는데 지원물자를 가득 실은 여러대의 화물자동차들이 혜산-삼지연철길건설장을 향해 질주하고있었다.

그중 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칸에는 많은 후방물자를 마련해가지고 백두산지구로 찾아가는 녀성이 있었다.

강서탄광 로동자 김윤옥동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어느덧 자동차는 건설장에 도착하였다.

지원물자를 받아안은 돌격대원들은 녀성의 몸으로 많은 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먼길을 달려온 그 진정에 감동되였다. 그러나 김윤옥동무의 남편이 영예군인인줄 알았더라면 그들의 감동은 더욱 컸을것이다.

다름아닌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꾸리는 사업이기에 그만이 아닌 이 나라의 천만군민은 이렇게 사심없이, 이토록 뜨겁고도 순결한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김윤옥동무는 그 다음달에 1 000켤레의 장갑을 비롯한 많은 지원물자를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준데 이어 눈보라를 헤치며 또다시 달려가 후방물자를 돌격대원들에게 안겨주었다.

탄광마을사람들도 다 모르고 이웃들도 미처 알수 없었던 그의 애국적소행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김윤옥동무에게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였을 때에야 알려지게 되였다.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높은 평가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에 김윤옥동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일편단심 애국충정의 한길로 걸어갈 불타는 맹세를 담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가고싶어 가는 길, 심장으로 매혹되여 가는 그 길우에서 애국의 마음은 보석처럼 빛을 뿌리였다.

올해 정초, 집에서 기르던 돼지도 잡고 갖가지 음식을 푸짐히 마련한 김윤옥동무는 남편과 함께 지원물자를 안고 탄부들을 찾아 막장으로 향했다.

작업의 쉴참에 남편과 함께 음식도 권하고 노래도 불러주며 잊을수 없는 인상을 남긴 그를 바라보는 탄부들속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말리는 살수 없는 녀성이지.》

탄부들의 그 말에 김윤옥동무에 대한 평가가 집약되여있다.

탄전이 자랑하는 녀인.

그는 오늘도 영예군인의 안해이기 전에 성실한 로동자로, 한 가정의 주부이기 전에 나라일에 먼저 마음을 쓰며 헌신하는 참된 애국자로 변함없이 한길을 가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시대의 벅찬 숨결을 반영한 시가작품 창작

216사단 백두산영웅청년려단에서 군중문학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모든 곳에서 영웅청년문화가 활짝 꽃펴나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울려퍼지게 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이곳 청년돌격대원들은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위대한 시대정신, 영웅신화들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벅찬 현실을 반영한 수십편의 시가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려단의 지휘관들은 청년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청춘의 열정이 용솟음치게 하는 진실하고 실효가 큰 교양방법들을 탐구하고 활용하는 한편 자신들부터가 전투적이고 호소성이 강한 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다.

시 《뵙고싶은 우리 원수님》, 《심장은 속삭이네》, 《크나큰 믿음》 등의 작품들에는 청년들을 사회주의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굳게 믿으시고 우리 인민의 정신적고향인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 불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혁명의 시원이 열린 력사의 땅에서 보람찬 청춘시절을 빛내여가는 백두청춘들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백두교정의 강의는 계속된다》, 《자랑하라 우리의 청춘시절》을 비롯한 시작품들에서 격조높이 구가되였다.

백두산의 청신한 정기를 담은 영웅청년문화의 창조자, 문명강국건설의 선봉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갈 청년들의 불타는 맹세를 담은 《삼지연군의 황홀한 새 모습앞에서》, 《체육열풍 좋다》, 《이동도서열람초소》 등의 작품들도 있다.

시 《돌격대제복》, 《청춘》, 《배낭의 무게》는 자력자강의 만리마속도로 새기를 주름잡으며 공화국창건 일흔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삼지연군꾸리기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갈 청년돌격대원들의 혁명적열정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사상은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의 등대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된 때로부터 40년세월이 흘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은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요구였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견인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이며 인류의 미래를 향도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의해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들어섰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전진하는 인류력사의 새시대, 자주시대가 펼쳐질수 있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에 매혹되였다. 력사발전과 혁명실천에서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한 활동이 5대륙의 방방곡곡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광범히 벌어졌다.

1976년 9월 마다가스까르에서는 세계적범위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과학토론회가 열리였다. 토론회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세계적범위에서 보급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구기구를 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그 다음해인 1977년 9월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를 내올데 대한 평양선언이 채택되였으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을 위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6돐에 즈음하여 1978년 4월 9일 일본 도꾜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대회가 열리였다. 대회는 10개 나라와 1개 국제기구에서 온 대표들과 일본의 47개 도, 도, 부, 현에서 온 130여개의 주체사상연구소조대표들, 주체사상신봉자들, 저명한 학자, 문화인, 사회활동가 등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성스러운 기치》라는 제목의 력사적인 창립선언이 채택되였다. 또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이로써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이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됨으로써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세계적규모에서 조직화하고 목적지향성있게 해나갈수 있는 핵심적인 거점을 가지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뿐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담당할수 있는 주체적인 력량을 강화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과 활동의 정당성은 흘러간 지난 40년간의 력사를 통하여 충분히 확증되였다.

주체사상이 세계적범위에로 급속히 확대, 보급되는데 위구심을 느낀 세계의 반동계층과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은 어떻게 하나 그것을 막아보려고 온갖 모략을 다 꾸미였다.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리고 주체의 기본흐름, 그 원천을 봉쇄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런가 하면 주체사상의 원리를 외곡하고 그 영향을 약화시킴으로써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주체사상을 따르지 못하도록 발악하였다.

적대세력의 책동속에서도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추호의 동요나 흔들림없이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계속 열고 주체사상을 단순히 원리로서 파악하고 인식하는데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현실에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에 의해 주체사상의 진리성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으며 그 순결성은 확고히 보장되였다.

국제김일성상은 열렬한 주체사상신봉자였던 비슈와나스의 발기로 1993년 4월 13일에 제정되였다.

1993년 9월 7일 당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였던 일본사람 이노우에 슈하찌가 첫 수상자로 되였다.

1994년 4월 9일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에서 특출한 공헌을 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이며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인 리.비.무케르지에게 국제김일성상이 수여되였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이후에도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는 줄기차게 계속되였다. 1995년과 1996년, 1997년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단마르크, 로씨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진행되였으며 이로 하여 주체사상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지구의 방방곡곡에 과급되여나갔다.

인류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는 뜻깊은 력사적시기에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의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주체사상세계대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 위업의 빛나는 계승에 관한 주체사상세계대회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빛나는 사상리론적재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류자주위업의 영원한 향도적기치라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누리에 선언하였다.

주체사상세계대회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준 국제적대회합이였다.

정녕 주체사상은 그 진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었으며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변함없이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을 틀어잡고있다.

지난 6일 국제김일성상리사회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에게 국제김일성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적범위에서 급속히 보급되여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적발전을 인도하는 지도적지침으로서 정의롭고 공평한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추동력으로 세계의 변화발전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년대와 세기가 바뀌였지만 주체사상은 오늘도 영원한 태양의 빛발이 되여 세계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비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정의롭고 자주화된 새 세계는 반드시 건설될것이다.

림 원

태양절에 즈음하여

민주꽁고단체 불레찐 발행

태양절경축 민주꽁고준비위원회가 3월 25일 불레찐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라는 표제밑에 《아프리카는 잊지 않는다》, 《사심없는 물심량면의 지원》 등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불레찐은 인류자주위업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에 물심량면의 지지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불레찐은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와야 한다는 말이 대륙의 공용어로까지 되였다, 주석의 사심없는 지원과 협조에 떠받들려 아프리카대륙의 방방곡곡에는 수많은 창조물들이 일떠섰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

로씨야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2일 로씨야 아무르국립인문사범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대학 부총장과 교직원, 학생들, 하바롭스크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기증식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도서들과 날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달되였다.

대학 부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대학의 과학교육사업에 도움이 되는 도서들을 기증받은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친선적인 이웃인 조선과의 과학문화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 전통적인 로조친선강화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강의하고 근면한 조선인민이 과학교육발전에서도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미국의 관세징수조치에 대응

미통상대표부가 3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근 1 300개의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관세징수제품목록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중국이 이에 대응해나섰다.

중국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제적의무를 위반하고 중국에 긴급상황을 조성하였다고 밝히고 나라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원산지가 미국인 콩 등의 농산물과 자동차, 화학공업제품, 비행기 등 수입상품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등한 추가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스라엘군의 살인행위 규탄

꾸바외무성 국장이 3일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살인행위를 규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야만적인 행위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엄중하고 악랄한 침해로 되며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파괴하고있다고 단죄하고 이 문제를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격행위와 팽창주의적이며 식민주의적인 정책들을 즉시 종식시키도록 압력을 가할것을 국제기구들과 유엔안보리사회에 요구하였다. 또한 그는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자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고 1967년 중동전쟁이전의 경계선을 국경으로 하는 독립국가창건을 지지하는 꾸바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아랍국가련맹 리사회도 3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살륙만행을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경계지역에서 평화적시위를 벌리던 팔레스티나인들을 무참히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적수공권의 주민들에 대한 고의적이며 대규모적인 탄압행위로, 인도주의 및 인권에 관한 국제법들에 위반되는 반인륜적인 전범죄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의 전범죄를 따질 국제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유엔에 요구하였다.

나라의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

수단대통령 오마르 하싼 아흐마드 알 바쉬르가 2일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금 국내에서 성행하고있는 부정부패와 금밀수, 비법적인 자금류통, 사기협잡으로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를 청산하기 위한 새로운 공세를 벌릴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인민의 재부를 횡령하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저애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결정을 단죄

짐바브웨대통령 에머슨 음난가그와가 최근 한 잡지와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결정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이 짐바브웨에서의 토지개혁을 문제로 삼고 수십년동안 가해온 제재를 또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단죄하면서 이것은 나라의 일부 반대파정치세력들이 제공한 그릇된 정보에 기초한것이라고 까밝혔다.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짐바브웨에 직접 와보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재침을 노린 일본의 무분별한 무력강화책동

일본반동들이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무력강화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3월 27일 일본륙상《자위대》는 전국에 널려있는 5개의 방면대를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사령부로서 《륙상총대》를 발족시켰다.

이와 함께 《외딴섬방위》를 담당한 《수륙기동단》도 새로 내왔다.

미해병대와 같은 상륙전문부대인 《수륙기동단》에는 미군이 이라크전쟁 등에서 사용한 《AAV-7》수륙량용차와 《오스프레이》수송기가 배비될것이라고 한다.

NHK방송은 《수륙기동단》창설이 주변나라들을 자극하여 군비경쟁을 불러올수 있으며 상륙작전까지 실행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대를 내오는것은 전후 일본이 제창해온 《전수방위》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방송은 《수륙기동단》의 창설이 《자위대》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것은 명백하다고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극악한 살인악녀의 7시간행적

최근 남조선에서 지난 2014년 4월의 《세월》호참사당시 박근혜역도의 범죄행적과 관련한 자료가 새롭게 폭로되여 각계층의 분노를 폭발시키고있다.

《세월》호참사당시 박근혜의 7시간행적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에 의하면 참사당일 오전 10시에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역도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였다. 이날 박근혜는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고 침실에 자빠져있다가 오전 10시 20분경에야 청와대 안보실 실장으로부터 재난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세월》호침몰로 아이들이 바다에 빠진것이 무슨 큰일인가싶게 늑장을 부리며 제 할짓만 하다가 오후 늦게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났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세월》호참사당시 사무실을 비우고 어디에 가있었는지 알수 없었던 박근혜가 오후에야 나타나 《학생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고있다는데 왜 그렇게 발견하기 힘든가.》라는 황청같은 수작을 내뱉아 사람들을 아연케 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다면 박근혜는 도대체 《세월》호침몰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7시간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와 관련한 여론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박근혜패거리들은 집권자가 《즉시에 보고를 받고 수시로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강변하였다. 그리고 역도의 행적을 기록한 청와대문건들까지 날조하면서 사실을 숨겨왔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발견된 청와대문건들에서 박근혜패당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보고자료들을 교활하게 자간질한 흔적들이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문건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였으며 그 과정에 뜻밖의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된것이다.

박근혜는 자기가 오전 10시에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10시 15분에 청와대 안보실에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딴판이다. 박근혜역도가 20-30분 간격으로 11차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고 수시로 지시를 떨구었다는것도 새빨간 거짓이였다.

밝혀진데 의하면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9분경 언론보도를 통하여 《세월》호의 침몰에 대해 알게 된 청와대 안보실에서는 사건보고서를 만들어 당시 안보실 실장이였던 김장수에게 전하였다. 안보실 실장이 그에 대해 박근혜에게 보고하려 하였지만 역도의 사무실은 비여있었고 손전화기도 련결되지 않았다.

다급해난 김장수는 《문고리3인방》의 하나로 알려진 청와대 2부속비서관 안봉근에게 박근혜와 전화련계를 취해줄것을 부탁하는 한편 안보실 위기관리쎈터 책임자에게 문건을 전달할것을 지시하였다. 이렇게 되여 문건이 박근혜에게 가닿은 때가 오전 10시 20분경이였다. 하지만 박근혜는 그 문건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침실에 틀어박혀 제 볼장만 보았다.

한편 안보실 실장으로부터 련락을 받은 안봉근이 부랴부랴 박근혜의 침실이 있는 관저에 도착하였다. 그가 밖에서 박근혜를 거듭 불러서야 역도는 침실에서 기여나왔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전달받은 역도가 안보실장에게 사건수습에 대한 전화지령을 떨군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배안에 갇힌 학생들에게서 살려달라는 마지막통보문이 날아온 때부터 시간이 퍼 지난 뒤였고 구조의 마지막기회마저 다 놓쳐버린 후였다.

이로 하여 능히 살릴수 있었던 수백명의 아이들이 바다물에 빠져죽게 되자 박근혜의 측근들은 책임이 두려워 청와대문건들을 뜯어고치는 놀음을 벌려놓고 역도가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시간과 지령을 내린 시간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때에도 박근혜가 9시부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았고 10시에 사건보고서를 받아보았다는 거짓증언을 했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자들인가.

검찰조사에 의해 박근혜의 7시간행적과 관련한 다른 자료들도 드러났다.

그날 오후 박근혜는 최순실을 비밀리에 불러들였다. 오후 2시 15분경 박근혜의 관저에 들어간 최순실은 역도와 그 비서관들과 풀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비난의 초점이 청와대에 쏠리지 않게 하겠는가에 대해 모의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박근혜는 최순실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모의가 끝나자 역도는 한가하게 전용미용사들을 호출하여 자기 낯짝과 머리를 손질하게 하였다. 그리고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갔다. 그 시간이 바로 오후 5시 15분경이였다.

역도의 7시간행적은 바로 이렇다.

박근혜의 7시간행적이자 곧 극악한 살인악녀의 범죄행적이다.

밝혀진것은 박근혜의 7시간행적만이 아니다. 박근혜패당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국회》청문회 등에 대비하여 사전 답변련습까지 하면서 저들의 죄악을 감추려고 발악한 사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이번에 다 드러났다.

이 경악할 사실앞에 온 남조선땅은 격분으로 끓어번지고있다. 각계층 인민들은 《우리가 4년동안 속았다.》, 《패륜〈정권〉은 죄악의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분노를 터뜨리고있다. 인터네트에는 극악한 살인마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요구하는 글들이 차넘치고있다. 남조선의 각 정당들도 일제히 론평들을 발표하여 범죄자들을 철저히 조사, 처벌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지금껏 박근혜역도는 자기에게는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근무시간이였다느니, 《세월》호참사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할바는 다했다.》느니 하는 요설로 민심을 기만하며 실로 뻔뻔스럽게 놀아댔다. 하지만 이번에 폭로된바와 같이 역도는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한 그 시각에도 침실에서 나뒹굴며 제 흥에 겨워 시간을 보냈다. 제반 사실들은 《세월》호참사야말로 박근혜역도의 반인륜적악행과 무책무능의 필연적산물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력사는 반역과 패륜패덕으로 악명을 떨친 정치시정배, 악한들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지만 박근혜역도와 같은 희대의 평형한,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알지 못하고있다. 박근혜야말로 저 하나의 안락과 영달을 위해서라면 애어린 생명들도 서슴없이 제물로 바치는 피에 절은 살인악마, 초보적인 사고능력도 갖추지 못한 정신적기형아, 인간오작품이다.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자인 박근혜역도와 그 패거리들은 응당 준엄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일치한 주장이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박근혜역도의 7시간행적이 전면적으로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각계층속에서 반보수기운이 더욱 고조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은정철

오늘의 세계

막다른 골목에 빠진자의 오그랑수

각종 추문으로 얼룩진 모리또모학원문제가 일본정계를 뒤흔들고있다. 이런 속에서 얼마전 일본수상 아베가 각료간담회라는것을 열고 토지매각과 련관된 문서수정문제와 관련하여 각 행정기관들에서 전자결재체계에로의 이행을 다그치는데 즉시 달라붙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아베는 문서수정문제에 관한 조사를 두고 《앞으로 문제점을 철저히 찾아내여 정부급에서 문서관리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떠들었다.

여론을 의아하게 만든것은 일본집권자가 문서수정문제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였는데 《통탄할 일》이라느니, 정부직원들이 《공문서의 중요성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느니 하고 마치 남의 잘못을 탓하듯 뻔뻔스러운 사설을 늘어놓은것이다.

아베가 왜 이렇게 놀아대는가.

궁여지책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막다른 골목에 빠진자들이 살구멍수를 찾다 못해 짜낸 어설픈 계책이라는 뜻이다.

지금 아베는 모리또모학원문제로 궁지에 몰려있다. 특히 부정추문사건을 덮어보려고 학원에로의 토지매각과 관련된 결재문서에서 자기와 처에게 불리한 문구들을 수정하여 없애버린것이 더 큰 화근으로 되였다. 아베에게는 부정부패에 이골이 났을뿐아니라 성난 민심을 우롱하는 사기협잡질도 곧잘 한다는 딱지가 붙었다.

야당들과 사회각계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해명을 요구하여 정부를 거세게 다불러대고있다. 여론에 떠밀리워 오사까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까지 투입되여 사건조사를 벌리고있다.

불과 한달사이에 아베내각의 지지률은 거의 10%나 떨어졌다. 야당들이 들고일어나고있다. 집권자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의 거물인 간사장까지 그러한 불만에 합세하였다고 한다. 그로 말하면 지난 시기 집권자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지지를 명백히 하고있던 인물이다. 이러한 그에게서 나타난 립장변화는 곧 자민당안의 어수선한 분위기, 여당내에서 서서히 떠도는 반아베기운의 반영이라고 볼수 있다. 자민당내에서는 아베의 처 아끼에를 국회에 불러내여 심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있다.

모리또모학원을 둘러싼 부정추문사건이 그만큼 큰 론난을 야기시키는 사회적문제거리로 되였다. 국유지를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눅거리로 거래한 토지매각과 그와 관련한 결재문서 수정행위가 드러나고 토지매각을 담당하였던 재무성 남성직원의 자살, 국세청 장관의 전격적인 사임 등의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의혹은 더욱 확대되고있다. 부정추문사건은 자민당마저 아베를 비호하지 못하고 좌왕우왕하게 만들어놓고있다.

아베는 올해 가을에 진행되게 될 자민당총재선거에서 재선됨으로써 장기집권할것을 노리고있다. 그러나 모리또모학원문제로 아베의 재선야망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현실적으로 지금 자민당내에서 전 자민당 간사장 이시바, 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기시다, 일본총무상 노다를 지지하는 각 파벌들이 다음기 총재자리를 노리며 모리또모학원문제와 관련한 사태발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2012년 자민당 총재선거당시에 아베와 대결하였던 이시바는 이번 사건에 대해 똑바로 밝히는것이 《행정책임자의 첫째가는 책임》이라고 하며 아베를 압박하고있다. 한편으로는 다른 파벌과의 련대를 모색하는 등 세력확장에 몰두하고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인 기시다를 지지하는 파내에서도 《아베는 너무 오래동안 수상직을 차지하고있다. 새로운 사람이 나서야 한다.》며 자기 우두머리를 내세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있다고 한다.

아베로서는 그야말로 눈섭에 불이 붙었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가 전자결재체계에로의 이행에 대하여 제창하면서 문서결재방식에 문제가 있는것처럼 횡설수설해댄것은 그때문이다.

최근에 아베의 처에게 협박장이 날아오는 사건이 일어났다. 며칠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정상상태라면 집권자의 처가 협박장을 받았다는것은 스칠수 없는 큰 문제이다. 당장 인권침해로 여론화되고 당국이 법석 떠들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예상외로 조용하며 신고를 받은 해당 경찰서는 그 내용조차 밝히지 않고있다.

이런 속에서 오사까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토지매각과 관련한 결재문서수정에 관여한 여러 재무성직원들이 《수정은 재무성이 지시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일본재무성이 누구의 지시를 받는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정계에 뿌려진 시한탄과도 같은 모리또모학원을 둘러싼 부정추문사건의 전모가 점차 밝혀지고있다. 그에 따라 권력의 재편성을 노리는 정계의 여러 정치세력들의 각축전도 보다 치렬해지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

로미사이의 치렬한 신형무기개발경쟁

얼마전 로씨야대통령이 자국에서의 새로운 무기개발에 대하여 공개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군사기관들이 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있다고 한다.

로씨야국방성 부상은 로씨야 1TV방송프로에 출연하여 자국이 새로운 무기체계들에 대하여 공개한것은 전쟁으로 위협하거나 군비경쟁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현시대의 조건에서는 일방적인 우세를 달성하거나 무기개발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것이 그야말로 불가능하다는것을 세계에 경고한것이다. 그 어떤 새로운 도전에는 언제나 그에 대응하는 도전이 뒤따를것이다.》

이것이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다. 로씨야는 최근에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싸르마트》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자국의 무장장비가 효과성에 있어서 미국을 압도하였으며 미국의 매 무기들에 대한 대응책이 다 준비되여있다고 내놓고 선전하고있다. 로씨야가 힘의 전략적균형을 유지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유지할것이라는 표상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이다.

미국이 로씨야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고있으며 그로 인해 로미관계가 더욱 랭랭해지고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현재 미국은 새로운 무기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해 11월 미국언론은 자국이 신형장거리정밀무기개발을 추진시키고있으며 2020년부터 시제품시험을 시작하려 한다는것을 밝혔다. 미국은 《싸드》나 개량형 《패트리오트》미싸일 등 기존미싸일방위체계에 비해볼 때 제작비가 눅고 더 위력한 효과를 볼수 있는 최신예극초음탄시험발사를 2019년에 진행하려 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은 로씨야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새로운 핵무기개발도 추진하고있다. 로씨야가 밝힌데 의하면 미국은 유럽나라들의 무력을 로씨야에 대한 전술핵무기사용에 림할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있다고 한다.

로미사이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폐조약을 위반하고 자국을 거꾸러뜨리려는 미국의 가증되는 책동에 로씨야는 팔짱을 끼고앉아있으려 하지 않고있다. 새로운 무기개발에 적극적으로 달라붙고있다.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로미사이에 신형무기개발을 둘러싸고 군비경쟁이 더욱 치렬해질것이며 이것은 로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승걸

심각해지고있는 생물다양성파괴

최근 케냐에서 살던 세계적으로 유일한 북부흰서우 수컷이 죽었다.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북부흰서우의 마리수는 2000마리이상이였다. 그러던것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1984년에 15마리로까지 줄어들게 되였으며 얼마전까지 수컷 한마리와 암컷 두마리만 남아있었다.

2009년에 3마리의 북부흰서우는 체스꼬에서 케냐에로 보금자리를 옮기고 24시간 무장보초들의 보호속에서 살아왔다. 오래동안 병에 시달리던 수컷이 끝내 죽음으로써 지구상에는 두마리의 북부흰서우 암컷만이 남게 되였다. 결과 북부흰서우는 멸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것은 생물종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생물다양성이 계속 파괴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실례이다.

생물다양성이란 생물들호상간 그리고 생물과 무생물사이에 호상작용이 이루어지는 생태환경의 다양성, 생태계안에서의 생물종의 다양성, 종안에서의 유전자의 다양성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생물다양성을 이루는 동물과 식물, 미생물들은 자연생태계의 구성요소이며 경제의 지속적발전의 기초로 되고있다.

생물다양성의 파괴로 경제발전과 인간생활에 위협이 조성되고있다. 그 원인은 산림의 남벌, 무차별적인 밀렵행위, 공업폐설물에 의한 오염, 과도한 이산화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등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파괴를 촉진하는 주되는 요인이며 이것은 자연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을 현저히 감소시키고있다.

아메리카지역에서는 생물종수가 15세기말-16세기초보다 약 31% 줄어들었다. 다른 요인들과 함께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는 경우 2050년에 가서 40% 줄어들것으로 보고있다. 아프리카지역에서는 2100년까지 기후변화의 후과로 절반이상의 새와 포유류가 사멸되고 식물종수는 퍼그나 줄어들수 있다고 한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지난 25년간 바다보호면적이 근 14%, 륙지보호면적이 0.3% 늘어났다. 하지만 아시아에서의 이러한 노력이 생물다양성파괴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한다. 지속적이지 못한 양식활동과 과도하고 파괴적인 물고기잡이는 해안선 및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있으며 현재의 어업활동이 지속된다면 2048년에 가서 아시아지역에는 잡을 물고기가 없게 될것이라고 한다.

생물종들은 일단 사라지면 영원히 재생할수 없기때문에 이것은 커다란 자원손실로 된다.

그런것으로 하여 오늘날 생물종들의 사멸을 방지하는것은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다.

본사기자

ㄱ-81056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